## OC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에서 6.25 행사 열린다

지난해 11월 완공된 오렌지 카운티(OC) 한국전참전미군 용사기념비 앞에서 6.25 발발 75주년 추모행사가 열린다.

OC 해병전우회(회장 정재동) 는 최근 "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'추진 위원회' (위원장 심 경오 이사장)를 결성했다." 면 서 "이 행사에는 생존 참전 용 사와 그 가족 300여 명을 비롯 해 각계 인사를 초청해 개최할

예정"이라고 밝혔다. OC 해병전우회는 또 이 행사를 위해 6.25 전시관 및 포토존을 설치하고 행사 당일 25 분 분량의 6.25 전쟁 영화 상영, 현존 참전 용사에게 기 념품을 전달하고 표창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 비하고 있다고 전했다.

심경오 위원장은 "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닌 기억되는 전쟁이어야 한다." 라며 "자유를 위해 산화한



▲ OC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. 사진=국가보훈처

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길이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추모식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 을 가져줄 것"을 당부했다.

한국전참전미군용사기념비는 풀러턴 힐크레스트공원 (1360 N. Brea Blvd. Fullerton, CA 92835)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. 높이 1.5미터, 너비 2.5미터짜리 별 모양 기둥 5개로 이뤄진 기념비 벽면에는 미군 전

사자 3만6,591명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다. 전사자 이름이 모두 각인된 기념비는이 기념비가 처음이다.

기념비는 한인사회 기부금과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이 추진된 지 약 11년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준공됐다. 준공일인 11일은 한국에서는 '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'로, 미국에서는 '재향군인의 날 (Veterans Day)'로 기념하고 있다.

## 풀러턴 초·중학생 '제1회 한국문화의 밤'

풀러턴교육구(Fullerton School Distric -t)에 있는 초·중학교의 한국어반 재학생과, K-팝 클럽 소속 학생들이 '제1회한국문화의 밤(Korean Culture Night)' 행사(지도교사 지니 심)를 연다.

이 행사는 5월 20일(금) 오후 5시30 분~7시까지 팍스중학교(Parks Junior High School, 1710 Rosecrans Ave., Fullerton, CA 9283) 캠퍼스 야외 무대 에서 열린다.

이날 행사에서는 K-Pop 연주를 비롯 해 K-Pop 노래와 댄스 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한국 문화 퀴즈, Raffle drawing 이벤트도 열린다. 또 판소리 명창 연운 서훈정 씨의 판소리 공연과 LA에서 활동하는 가수 아즈라의 특별 공연도 펼쳐진다.

행사를 지도한 심 교사는 "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

Irvine, CA 92606



▲ 지니 심 지도교사. 사진=지니 심

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학생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." 면서 "이번 행사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간 학생들이 배우고 익힌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을 소개하는 작은 축제의 무

그는 또 "이번 행사가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." 면서 "많은 분들이 참석해 열심히 행사 를 준비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재

대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능과 끼를 함께 즐기길 바란다." 고 덧붙였다.

이날 행사에는 팍스중학교, 비치우드, 피슬러, 라구나 로드초등학교의 한국어반과 K-팝 클럽 학생과 가족 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. 이외 학교 학생이 행사에 참 석하려면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.

## 120년 미주 한인 역사·문화 소개 'e-도서관' 내년 개설

120년 미주한인 이민 역사와 재미동포의 활동을 한눈에 확인하고 배우게 될 전자도서관(e-Library)이 내년에 개설된다.

9일 '연합뉴스' 에 따르면 e-도서관 설립은 LA총영사관(총영사 김영완)이 외교부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올해 말까지구축을 완료, 내년 초 오픈하는 일정으로추진된다.

e-도서관 개설과 운영은 미주한인사교육재단(KASEF, 회장 김동조)이 맡는다. 이 재단은 미주 한인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개발과 교사 연수를 위해 지난 2월 설립된비영리 교육단체이다.

9일 총영사관과 KASEF에 따르면 e-도 서관에는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처음 도착한 후 주 요 한인 이민사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 자료가 등재돼 언제 어디서든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 다. 특히 초·중·고교 교사들이 미주 한인 사를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와 학습지도안도 주제별로 정리해 놓 을 예정이다.

e-도서관은 캘리포니아주가 인종학 과목을 오는 2025년부터 고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포함한 후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됐다. 현재 KASEF의 웹사이트(www. kasef.org)에는 초·중·고교의 미주 한인사교사용 교육자료인 수업 활동(Activity), 평가(Assessments),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이등재됐다.

김동조 회장은 "지금부터 더 많은 미주한인사와 인물, 스토리를 개발하고 그 내용을 e-도서관에 올려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." 고 밝혔다.

Hacienda Heights, CA 91745



Los Angeles, CA 90004